

“몇대 몇~” 아직도 생생한데... ‘국민 MC’ 허참 하늘의 별 되다

간암으로 투병 중 별세

장수 예능프로그램 ‘가족오락관’을 25년간 진행한 MC 허참(본명 이상용)이 별세했다.

1일 방송가에 따르면 고인은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이날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난 허참은 1971년 동양방송 ‘7대 가수쇼’로 데뷔했다. 이후 출연자와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는 입담으로 ‘쇼쇼쇼’, ‘도전 주부가요스타’, ‘가요정백전’, ‘올스타 청백전’ 등의 MC로 활약해왔다.

방송에 진출하기 전에는 종로 음악감상실 셀브르에서 DJ로 활동했다.

예명 허참도 이때 정해졌다. 당시 사회자가 이름을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고 우스개 답을 했고, 사회자가 ‘허참’이라면서 허를 차자 “바로 내 이름이 허참”이라고 맞받아친 데서 연유했다.

대표작은 KBS 예능 ‘가족오락관’으로 1984년 4월 첫방송부터 2009년 4월 최후회까지 진행했다. 그가



MC 자리를 비웠던 기간은 1980년대 중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일주일뿐이었다.

방송에서 양 팀의 점수를 확인하는 순간 ‘몇대 몇~’이라고 외치는 허참의 멘트는 ‘가족오락관’의 상징이었다.

그는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쓴 채로 정답을 맞혀야 하는 ‘고요 속의 외침’, 60초 동안 어떤 질문에도 ‘물론이죠’라고 답해야 하는 ‘터져야 산다’ 등 정신없이 진행되는 다양한 게임을 깔끔하게 진행했다.

게스트로 나온 출연자들의 짓궂은 농담이나 어색한 발언들을 특유의 재치로 맞받아치며 방송을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어 큰 사랑을 받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상벽, 임백천, ‘뽀빠이’ 이상용 등과 함께 ‘국민 MC’, ‘명 MC’로 불렸다.

MC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2005년에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TV진행상, 2006년에는 KBS 연예대상 공로상을 받았다.

‘가족오락관’이 막을 내린 이후에도 SBS ‘트로트 팔도강산’, KBS ‘도전 주부가요스타’·‘트로트 팔도강산’, 경인방송 ‘8도 노래자랑’, 엠넷 ‘골든 히트쇼’ 등 음악 프로그램 MC를 맡아왔다.

2003년에는 음반 ‘추억의 여자’를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했고, 2019년 신곡 ‘아내는 지금’을 선보이며 트로트 가수로서 제2 인생을 누렸다.

최근까지 KBS ‘불후의 명곡-전설의 명MC 특집’,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등에 출연하며 TV에 얼굴을 내비쳐 반가움을 줬다.

허참은 2008년 대장 선종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은 경험을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발견된 선종은 간으로 침범하기 직전이었고, 다행히 수술로 떼어낸 이후에는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수술 이후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방송에서 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농협 구례교육원, 코로나19 확산에 방역 강화



농협 구례교육원(원장 기영운)은 지역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최근 교육원 전 구역을 살균 소독하고 외부강사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기진단을 의무화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소외계층에 떡국세트 전달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장과 최경재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형준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사)건강사랑 봉사단을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시설·단체

19곳에 총 2300인분의 떡국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후원품은 지난해 말부터 지역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1전비, 지역 생산 우리밀 상품 141개 공동구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지역 생산 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우리밀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1전비는 장병과 군 가족의 우리밀 상품에 대한 사전 수요를 파악한 뒤 우리밀 선물세트 등 141개 상품을 구입했다.

행사를 기획한 1전비 작전지원과장 채인기 중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대목임에도 걱정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공동구매를 계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1전투비행단으로서 상

생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IA 나성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액기부자 ‘그린노블클럽’ 가입



KIA 타이거즈 나성범(사진)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멤버가 됐다.

‘그린노블클럽’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고액기부자 모임을

말한다. 나성범이 후원한 기부금은 취약 계층 아동의 스포츠 인재 양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나성범은 지난 10일에는 자신의 팬클럽과 함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야구 판나무를 지원하는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나성범과 그의 팬클럽은 2016년부터 야구 판나무를 지원하는 등 사랑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승진
 - ▲옛전남도청복합추진단장 임성환
 - ◇과장급 전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장직위) 장수경
- ◆고용노동부
 - ◇국장급 승진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주평식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5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40 좋은아침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55 제20대 대통령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	55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0	00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00 꿀맛 영화가 좋다 40 지구촌 뉴스		
11		00 개는 훌륭하다(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12 MBC 뉴스 20 똑딱구조대 35 푸러기 식사교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오세모 스페셜
13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나야 살던 고향(재) 55 UHD 스텔라	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5 이 맛에 산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주디세이 45 영동발달 콩순이와 친구들	00 한 번쯤 멈출 수밖에(재)		00 뉴스브리핑
15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즈 어둠의 퇴마사 30 방과 후 초능력	00 KBS 뉴스타임 10 또봇V(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16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15 티티 체리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대통령선거 정책정책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30 두 번째 남편(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아마드 사우루스(재)
18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총장축제기념 Again 1983. 전설의 타이거즈	20 아마드 사우루스 50 닥터 365 55 테마스페셜
1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 10 한국인의 밥상	50 사랑의 패배기	05 생방송 연공복권 720+ 10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20	00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토론	30 UHD 환경스페셜		
2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주점이 풍년	00 특집 100부토론 선택2022	
22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0 한 번쯤 멈출 수밖에	30 광주MBC 다크플러스 리플레이스	00 SBS 8 뉴스 15 KBC 8 뉴스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3	10 KBS 다크 클래식 (23.5)	00 통합뉴스룸 ET(재) 30 사랑의 가족(재)	00 광주MBC 특별기획 다크멘터리 금주의 유산	00 나이타라인 30 앙코르 남도애가요
24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특집 아우레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가씨와 울리와 율리엄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07:00 로보가 폴리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말괄량이 삐삐
07:15 티시테시	12:10 EBS 부모	19:00 레이디버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0 한국의 돌레길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따사카이 다이어리
08:00 땀땀 땀 땀 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25 클래스 e	<나를 찾는 여행 소울트립 -우리는 지금 낙원으로 간다, 모리셔스>
08:45 꼬마버스 타요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9:00 시흥	16:00 페파 피그	<새해가 밝았어요 4부 거참, 재미지다>
09:15 봉구야 말해줘3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1:50 이것이 야생이다
09:30 통통가족	16:30 땀땀 땀 땀 땀(재)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명탐정 피트	23:0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10 한국의 돌레길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3일(음 1월 3일 丁亥)

<p>36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48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60년생 허장성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매사가 순조로를 얻는다. 72년생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하라. 84년생 아예 버려야겠다. 96년생 필연적인 형국이니만큼 각오하고 임하라. 행운의 숫자 : 32, 76</p>	<p>42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임을 감안해야겠다. 54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허점을 날게 할 수다. 66년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78년생 울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다. 90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야겠다. 02년생 돈이 좀 들어올 수다. 행운의 숫자 : 26, 91</p>
<p>37년생 연결 고리가 참으로 부실하니 관계의 설정과 활용에 유의하라. 49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이변이 분명히 보인다. 61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73년생 이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라. 85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패념치 말라. 97년생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5, 97</p>	<p>43년생 규모보다는 짜임새와 실리에 치중해야겠다. 55년생 일 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 보 후퇴도 무방하다. 67년생 원칙에 따라서 손러로만 처리하라. 91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인내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03년생 동일한 곳에 집중했을 때 실효적이다. 행운의 숫자 : 13, 78</p>
<p>38년생 잠시 기우뚱하던 배가 반동으로 바로 서는 양태이다. 50년생 조만간에 곧 결정이 날 것임에 틀림없다. 62년생 지금이라도 반전시키는 것이 백번 낫다. 74년생 길보기보다 내실을 기해야 하느니라. 86년생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98년생 긍정적인 희소식이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75</p>	<p>44년생 유독 배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싹 트리라. 68년생 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 두어야 한다. 80년생 번거로우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도 괜찮다. 92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04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2, 57</p>
<p>39년생 말을 듣고 나면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51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라. 63년생 길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75년생 상당히 높은 계도로 오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게 된다. 87년생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근간을 이루게 되리라. 99년생 달라지고 있는나리. 행운의 숫자 : 38, 63</p>	<p>45년생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57년생 돌발적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69년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 81년생 원래부터 존재했던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93년생 가까운 이와인 인연이 길사로 연결되겠다. 행운의 숫자 : 03, 58</p>
<p>40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52년생 만사 여의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흐름대로 임하라. 64년생 조짐이 심상찮으니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76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 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88년생 무의미하다면 굳이 애매할 필요는 없다. 00년생 나가는 것이 많을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2, 53</p>	<p>34년생 중저대한 것에 신경쓰다가 중된 것에 소홀히 할 수다. 46년생 천우신조로써 대결하는 운세이다. 58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로다. 70년생 공한 처지에 있던 이가 특효가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다. 82년생 인화야말로 만사를 성사시키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94년생 흥이 변하여 길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9, 85</p>
<p>41년생 요령보다 원칙을 따르는 것이 목적 달성을 더 용이하게 한다. 53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국면이다. 65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77년생 양자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면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89년생 충심이 깃들어야 감동을 줄 수 있느니라. 01년생 일취일창하라. 행운의 숫자 : 16, 62</p>	<p>35년생 길조가 비취고 있다. 47년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번거롭다. 59년생 계약 전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로운다. 71년생 취지는 좋으나 진행되면서 희석되어질 수도 있다. 83년생 굳게 닫혔던 문이 신비롭게 열릴 것이다. 95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행운의 숫자 : 00, 54</p>